

올해는 자영제과점 경쟁력 강화에 주력합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대한제과협회가 2006년 올해로 44번째 정기총회를 맞이했습니다.

최근 몇 년을 돌아해보면 본 협회는 참으로 격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과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과회관을 건립하고 제과점을 독립 업종으로 분리시켜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용인과 고양에 새롭게 지부를 창립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협회 내부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계 기술발전을 위해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대회를 재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대만·중국 등 그동안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제과협회와 기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우의를 다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Siba가 국제공인전시회로 인증 받아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글로벌화에 발맞추게 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세계무대 홍보비로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음으로써 행사의 성공을 위한 튼튼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명실공히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한축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그 역할을 당당히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본 협회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건의에 정부부처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 또한 이 같은 협회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받아 2년 동안의 시범종목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는 제과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계획입니다. 1천 200만 원의 우승상금이 걸려있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나이에 관계없이 제과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므로 기술발전에 관심 있으신 회원 여러분의 열띤 참가신청을 기

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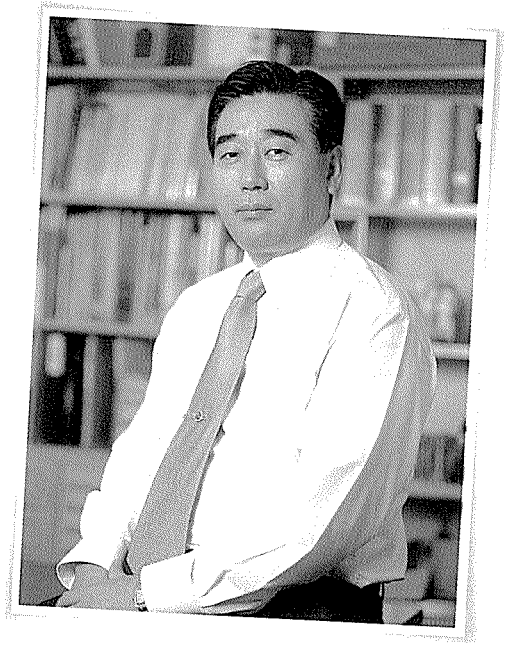
지난 6월 발족된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페이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전 앞에도 굴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불태우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맞서 싸워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8명의 공동위원장은 자신들의 사업도 내팽개쳐둔 채 오로지 제과인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이번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총평을 하자면 서로 크게 상처받는 일 없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냈으며, 이번 투쟁이야말로 흐려져 있던 상도의를 바로잡고 불공정한 거래를 우리업계에서 영원히 추방하는데 튼튼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8명의 공동위원장과 전국지회지부장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올해의 협회사업은 자영제과점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운영에 초점을 맞춰 가고자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프랜차이즈와 자영 제과점 사이의 가격 경쟁에서의 불공정 요소는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만 믿고 우리 스스로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지 못한 채 각자의 몫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 작은 슈퍼마켓이나 동네 구멍가게에도 혁신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공동의 PB(Private Brand, 자체 브랜드)상품을 개발하고 여러 점포가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동네의 작은 점포에 대해 갖게 되는 '지저분하다' '살 만한 제품이 없다' '서비스가

“ 미소 짓는 얼굴로 거울을 마주보면 거울 속 상대도 미소 지으며 나를 마주하고, 찡그린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 속 상대도 찡그린 얼굴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고 다함께 노력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냅시다. ”



떨어진다' 는 등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혁신운동이 한창입니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 동네 슈퍼들의 제품 진열이 눈에 띄게 정리됐고 음료 및 세제 등 공동으로 개발한 자체 상품을 내세워 할인점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택배 무료 보관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집객 공간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 사랑방을 운영하는 등 동네슈퍼의 서비스 개선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급변하고 있는 요즘 우리 제과점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자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만 급급할 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한 일도 우격다짐으로 이기려 하는 비생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상대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는 비생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로 전환해 서로 노력하여 지금같이 어려운 과도기적인 현실을 극복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야말로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미소 짓는 얼굴로 거울을 마주보면 거울 속 상대도 미소 지으며 나를 마주하고 있을 것이며, 찡그린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 속 상대도 찡그린 얼굴로 나를 마주하게 되듯이 똑같은 일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소극적으로 임하다보면 나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고 함께 노력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냅시다.

올해 협회는 업종분류에 따른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샌드위치 카페나 케이크 카페 등 빵과 케이크를 취급하는 업소를 회원으로 흡수해 협회의 관리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샴페인 같은 저알코올 주류의 제과점 판매를 허용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에 끊임없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수입제과재료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편의점 및 기타 점포의 가두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에 관한 건의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중앙회관 세미나실 건립에 발맞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경영·마케팅 기법을 개발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의 회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영상 세미나 및 B2B같은 공동구매사업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가 추진하게 될 이러한 모든 사업에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격려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만 달리면 한 명만 일등이지만 네 방향으로 나눠 달리면 4명이 일등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360°로 제각각 달려 나가면 모두가 일등이 될 것입니다. 2006년에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다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사)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영모